

『素問靈樞類纂約註』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柳昊均·金容辰*

對素問靈樞類纂約註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柳昊均·金容辰

素問靈樞類纂約註는對清代汪昂所著內經의 注釋書, 經過對此書의 研究得出以下結論:

素問靈樞類纂約註對過去錯誤의 注釋內容進行了修正, 努力使內經之原意適用於臨床, 且對基礎理論及臨床의 發展帶來了很大影響. 素問靈樞類纂約註中“目爲心竅”主張, 是與李時珍의 “腦爲元神之府”和汪昂의 “人之記性在於腦”의 記述一樣, 都是對清代關於腦의 理論之發揚中邁出의 第一步, 對韓醫學中完善腦의 理論作出了巨大의 貢獻. 在說明運氣學說의 亢害承制論의 同時, 還主張生剋關係是運氣學의 根本內容, 既制又化是借助五運之理調和人類與六氣의 關係, 因此主張此爲古聖人인 在著作經典中研究化與育의 動機, 成了整個運氣學說의 要點或中心內容. 對難解의 字詞或經句의 註解中의 難點, 通過綜合引用佛家, 儒家, 道家等思想進行了說明, 從而使之能維持了其客觀性.

關鍵詞: 素問靈樞類纂約註, 汪昂, 注釋書.

I. 序 論

清代 醫學의 特徵은 瘟疫에 대한 發展과, 考證學의 발달로 인한 『內經』과 『難經』 그리고 『傷寒論』 등에 대한 註釋 및 整理作業이 活發하게 된 것과, 解剖學 및 辨證論治에 대한 認識이 확실하게 되었고, 특히 種痘接種法이 開發되기도 하였다¹⁾.

汪昂이 살던 淸初에는 오래 지속된 兵亂과 凶年이 계속 들어 百姓들이 病이 나서 죽지 않으면 의술이 淺薄한 庸醫들이 醫藥을 濫用하는 바람에 夭折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汪昂은 벼슬하기를 拋棄하고 醫術로써 萬民을 구

제하려고 하여, 醫學研究에 몰두하였으며 醫學의 發展과 後學들을 위해 엄청난 貢獻을 하였다.

汪昂은 平生동안 『素問』, 『靈樞』, 『難經』, 『神農本草經』, 『湯液經』, 『傷寒論』, 『金匱要略』, 『肘後方』, 『甲乙經』, 『千金方』, 『外臺秘要』 및 宋·金·元·明의 諸家들의 著作들을 研究하여 『素問靈樞類纂約註』, 『本草備要』, 『醫方集解』, 『湯頭歌訣』, 『經絡歌訣』 등의 著書를 編纂하였는데, 이런 著書들은 현재의 醫家들에게 必讀書로 認定되고 있다.

이에 筆者는 汪昂의 著書중 『黃帝內經』을 깊이 研究하여 註釋을 달은 著書인 『素問靈樞類纂約註』에 대하여 考察하여 汪昂의 『黃帝內經』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그의 醫學思想에 대하여 研究하여 얻은 바를 보고하고자 한다.

* 交信著者: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042) 280-2626, king@dju.ac.kr.

1) 洪元植·尹楊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 403~420.

II. 『素問靈樞類纂約註』에 대하여

汪昂은 『內經』이 “內經은 理致가 淵深하여 많고 널리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으나 …… 全書가 浩衍하고 또 質問을 하면 對答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觀覽하는데 不便하다.”²⁾라고 하여 『素問』과 『靈樞』에서 鍼灸를 除外한 나머지 부분을 臟象·經絡·病機·脈要·診候·運氣·審治·生死·雜論의 九類로 나누고 各家學說을 取하여 簡注하여, 清·康熙28년(1689년)에 上·中·下 세 卷으로 完成하였다. 이 책은 三十餘年의 時間을 들여 精誠을 다해 研究한 것으로 『內經』의 節注本中에서 比較的影響이 큰 것이 되었다.

이에 醫學史에서 『內經』에 대한 註釋方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全面的인 註釋과 校正을 加한 것으로는 王冰이 代表的이라 하겠고, 明代 吳鶴臯(吳崑)의 『素問吳註』二十四卷이 있으며, 역시 明代의 馬玄臺가 撰한 『素問註證發微』과 『靈樞註證發微』가 있으며, 清代 張志聰의 『素問集註』, 『靈樞集註』와 高世忒의 『黃帝素問直解』가 있다. 둘째 『內經』을 分類하여 새로이 編纂하는 方式의 研究型態로 『內經』의 原文을 解體하여 內容을 改編한 것으로, 註譯家 各自의 見解에 따라 內容을 收錄하고 篇이나 章을 全部 뒤바꾸기도 하였으며, 局所의 編註를 調整하기도 하였으니, 이런 種類의 著作으로는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와 明代의 張介賓의 『類經』, 元代의 滑壽의 『素問鈔』, 明代의 李中梓의 『內經知要』, 清代의 汪昂의 『素問靈樞類纂約註』 등이 이에 該當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內經』의 특정 thema에 의하여 註釋研究한 形態가 있으니 宋代의 駱龍吉이 撰한 『內經拾遺方論』은 『內經』의 病證을 研究함에 있어서 古代의 病證의 要所를 把握하는데 重要한 價値가 있다고 認定된다³⁾.

『靈樞』와 『素問』의 註釋에 關係해서는 唐나라의 王冰이 寶應元年(762년)에 처음으로 『黃帝內經素問』에 대해 次例를 定하고 註釋하였으며, 元나라의 至正年間에는 襄城의 滑伯仁이 『素問鈔』를 지었고, 明나라 新安의 祁門사람인 汪機(1463~1539)가 滑伯仁의 作品에 基礎하여 다시 註釋하고 『讀素問鈔』라고 이름 지었다. 明나라 嘉靖年間에 新安의 祁門사람인 徐春甫가 太醫院의 吏目으로 있던 중 皇室에 秘藏되고 있던 『黃帝內經素問』을 읽은 후 『內經要旨』 두 권을 지었으며, 明나라의 萬曆年間에 와서 馬元臺가 1568년에 『素問』에 대해 다시 註釋하여 『素問註證發微』라고 이름 지었으나 誤謬가 적지 않았다.

『靈樞』는 文字가 오래되고 奧妙한데 역시 馬元臺가 1586년에 註釋하여 『靈樞註證發微』라고 이름 지었다. 明나라의 萬曆 22년(1594년)에 新安의 歙人인 吳崑이 『素問吳註』를 지었는데 內容上 자기의 독자적인 見解를 발휘하여 以前의 註釋에서 未備하였던 部分을 보충하였다.

汪昂이 註釋한 『素問』은 王冰, 馬元臺, 吳崑 등 諸家의 것을 合하여 前人들이 註釋한 內容中 十分의 七을 繼承하고 자기의 見解를 넣은 部分이 十分의 二 三이 된다. 번잡한 것은 簡單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며, 文章을 잘 通하게 하고 文意를 解釋하여, 可能하면 言語가 簡單하고 뜻이 뚜렷하게 하였으므로 ‘約註’라고 불리기도 한다. 『中國醫學大辭典』에서는 “汪昂의 作品 가운데서 『素問』과 『靈樞』의 註釋이 잘 되어 善本이라고 稱할 수 있다.”고 하였고, 『中國醫學史講義』에서는 “汪昂이 편찬한 『素問靈樞類纂約註』에서 ‘臟腑’와 ‘經絡’을 先頭로 하여 차례로 서술하였으므로 읽는데 있어서 더욱 條理가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儒學을 공부하던 선비가 醫學에 從事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벼슬길에 막히게 되면 “不爲良相則爲良醫(훌륭한 宰相이 되지 않으면 훌륭한 醫員이 된다)”라는 思想의 影響을 받아 醫學에 從事하여 醫術으로써 世上에 行세하려고 하였다. 汪昂은 이와 달리 그의 醫學에 대한 重視

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p. 1~2. (其書理致淵深 包舉弘博 …… 全書浩衍又隨問條答 不便觀覽)

3) 洪元植·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p. 92~93.

程度는 行政이나 刑典과 같이 중요시 여겼다. 그는 “古聖인들이 醫術을 발명한 것은 事物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찍 죽지 않게 하며, 日常生活의 必需로서 그 기능은 刑政과 서로 表裏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素問靈樞類纂約註』를 편찬한 것은 滑伯仁 등이 全體 文章을 끊어 나누고 經典을 貫通해서 解釋한 것은 비록 分類는 나누었지만 제멋대로 되고 잘못되었으므로 이는 後學을 그릇 引導하고 先聖을 모독하는 行爲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汪昂이 醫學에 從事하게 된 思想觀點은 줄곧 純正하였다.

현재에는 『清史稿·藝文志』와 『八千卷樓書目』에 『黃帝素問靈樞類纂』三卷의 目錄이 기재되어 있으며, 現存하는 主要 版本으로는 1089년의 刻本, 1779년의 天德堂刻本, 1817년의 令德堂刻本, 清嘉慶掃葉山房刻本, 1871년의 掃葉山房刻本 등 5개가 保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⁵⁾.

Ⅲ. 『素問靈樞類纂約註』의 按語에 대한 考察

『素問靈樞類纂約註』에서 汪昂이 自身の 意見을 直接的으로 記錄하여 놓은 것들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1. 藏象第一

【素問·靈蘭秘典論】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⁶⁾

按컨대 素問의 本篇에 膻中은 있으나 心包絡이 없고, 靈樞의 經脈篇에 心包絡은 있으나 膻中

- 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 (古聖人發明醫術 使物不疵厲 民不夭札 日用之必需 其功用簡直與刑政相表裏)
- 5) 賈維誠, 三百種醫籍錄,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pp. 35-36, 89-90.
- 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 (按素問本篇 有膻中而無心包絡 靈樞經脈篇有心包絡而無膻中 心包又名心主 居心之下 代心行事 其所生病 亦與心同 臣使二字 正與君主相對 靈樞脹論曰 膻中者 心主之宮城也)

이 없다. 心包는 또 心主라고도 하며 心之下에 居하며 心을 대신하여 行事하니 생기는 疾病이 心과 같다. 臣使라는 두 글자는 바로 君主와 相對되는 글자이니 靈樞 脹論에 膻中은 心의 宮城이라고 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 在竅爲舌⁷⁾

昂按: 耳는 腎竅이지만 舌은 竅가 없으므로 心역시 耳에 竅를 맡기니 밤에 잘 때 소리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알게 된다.

【素問·刺禁論】 七節之旁 中有小心⁸⁾

昂按: 心은 性의 郛이고 腎은 命의 根이며 兩腎의 中間에는 一點의 眞陽이 있는데 生身의 根蒂로서 命門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이리하기 때문이다. 안에는 相火가 있는데 心君을 대신하여 行事하므로 小心이라고 말한다.

【素問·五臟生成】 諸脈者皆屬於目⁹⁾

按컨대 膀胱脈은 目內眥에서 起하고 胃脈은 目系에 이어지며 膽脈은 目銳眥에서 起하고 小腸三焦脈은 目銳眥에서 끝나며 心脈은 目系에 이어지고 肝脈은 目系에 연결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命門이 腎間動氣라는 主張과 『內經』의 理論을 자기 나름대로 敷衍說明한 부분들이다.

2. 經絡第二

【靈樞·經脈】 下膈屬胃絡脾¹⁰⁾

- 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 (昂按 耳爲腎竅 然舌無竅 故心亦寄竅于耳 是以夜臥聞聲而心知也)
- 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4. (昂按 心者 性之郛 腎者 命之根 兩腎中間一點眞陽 乃生身之根蒂 義取命門 蓋以此也 中有相火 能代心君行事 故曰小心 楊上善云 脊有二十一節 腎在第七節之旁 吳鶴皋亦主其說 蓋心君無爲 吾人一日動作云爲 皆命門之相火也 馬註云 心在五椎之下 心下有包絡 屬手厥陰 自五椎之下而推之 則心包當垂至第七節而止 故曰七節之旁 中有小心 若依此解 旁字似無着落)
- 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0. (按膀胱脈 起目內眥 胃脈系目系 膽脈起目銳眥 小腸三焦脈至目銳眥 心脈系目系 肝脈連目系是也)
- 1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6. (昂按 此乃正經 何以反屬支脈)

昂按: 이것은 正經인데 어찌하여 오히려 支脈에 속하는가?

○ 入中指內間 其支者 下廉三寸而別 下入中指外間 其支者 別附上 入大指間出其端¹¹⁾

昂按: 이것 또한 正經인데 어찌하여 또 支脈에 속하는가?

○ 是主骨所生病者¹²⁾

按: 全元起는 “少陽은 肝의 表이며 肝이 筋을 主하고 筋이 骨에 붙는 것은 少陽의 經氣가 榮해서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胸脇肋脾膝外 至脛絕骨外踝前 及諸節皆痛¹³⁾

按: 少陽은 身體의 側面을 行하므로 本篇에서는 ‘外’字를 많이 사용하였다.

【靈樞·營衛生會】 下焦如瀆(如瀆之蓄密 按 本節僅言下焦如瀆 而未及衛出于下焦)此之謂也¹⁴⁾

按: 本節에서는 다만 下焦가 瀆과 같다고 말했을 뿐 衛氣가 下焦에서 나왔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昂按: 岐伯과 黃帝가 말한 이 三焦는 上中下 세 곳의 空處에 있는 즉 古人이 말하는 所謂 이름은 있지만 形體가 없는 것이다. 馬玄臺는 이에 대해 “三焦를 얻을 수 없어 右腎을 갈라내어 三焦之府라고 말하는데 五臟六腑는 각각 그 위치가 있어 腎이 五臟의 하나에 속하며 본래 두 개가 있으니 어찌 右側의 것을 갈라내어 一腑라고 할 수 있겠는가. 三焦라는 三字의 뜻은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지?”라고 하였다.

【靈樞·邪客】 其餘脈出入屈折 其行之疾徐 皆

- 1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7. (昂按 此亦正經 何以又屬支脈 經別篇又云上通于心 循咽出口 上如瀆, 還系目系)
- 1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34. (按 全元起云 少陽者 肝之表 肝主筋 筋會于骨 是少陽之經氣所榮 故云)
- 1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35. (按 少陽行身側 故本篇多用外字)
- 1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46. (昂按 此岐黃所說三焦 在上中下三空處 古人所謂有名無形者是也 馬玄臺乃云 此不得爲三焦 而割右腎以爲三焦之府 竊謂五臟六腑 各有定位 腎居五臟之一 本有兩枚 焉得割其右者 另爲一腑乎 于三焦三字之義 何以稱焉)

如手少陰心主之脈行也¹⁵⁾

按: 九針篇에서는 “陽中の 太陽은 心이다. 그것은 원래 大陵에서 出하였고 大陵은 心包經의 穴에 속하며 心包로써 心君을 대신해 行事한다. 따라서 本經의 神門이라고 말하지 않고 心包의 大陵이라고 말하며 掌后 兩筋間의 橫紋陷中에 位置해 있다.

【素問·四時刺逆從論】 夫人之常數 太陽常多血少氣 少陽常少血多氣 陽明常多氣多血 少陰常少血多氣 厥陰常多血少氣 太陰常多氣少血¹⁶⁾

按: 靈樞의 五音五味篇에서는 “厥陰은 흔히 多氣少血하고, 太陰은 흔히 多血少氣라 하여 여기와 다른데 응당 素問의 것이 正確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內經』의 誤謬를 지적하고, 三焦에 대한 見解와 心과 心包의 關係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다.

3. 病機第三

【素問·調經論】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澁 故中寒¹⁷⁾

昂按: 陰盛하여 中寒하고 血澁한 사람이 어찌하여 오히려 盛大한 脈을 갖게 되었는지?

○ 氣并于上 亂而善忘¹⁸⁾

按: 靈樞大惑論에서는 “上氣가 不足하고 下氣가 有餘하며 腸胃가 實하고 心肺가 虛한데 虛하면 營衛가 아래에 머무르고 오래되면 위로 오르지 않으므로 善忘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靈樞·脈度】 陰陽俱盛 不得相榮 故曰關格

- 1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48. (按 九針篇云 陽中之太陽 心也 其原出于大陵 大陵系心包經穴 以心包代心君行事 故不曰本經之神門而曰心包之大陵 在掌后兩筋間橫紋陷中)
- 1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48. (按 靈樞五音五味篇 厥陰常多氣少血 太陰常多血少氣 與此不全 當以素問爲正)
- 1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57. (昂按 陰盛中寒 血澁之人 何以反得盛大之脈)
- 1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62. (按 靈樞大惑論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則營衛留于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

關格者 不得盡期而死也¹⁹⁾

昂按: 關格的 두 글자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하나이다. 難經에서는 비록 그 위치를 바꾸어 놓았지만 역시 상관없다. 예를 들면 素問의 脈要精微論에서 “陰陽이 서로 應하지 않은 것을 關格이라고 病名을 달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關格이 病에 속함을 설명한다. 또 仲景의 平脈篇에서 “下微本大者 則爲關格不通 不得尿”라고 하였고 또 “趺陽脈伏而澁 伏則吐逆 水穀不化 澁則食不得入 名曰關格”이라고 한 것을 보면 仲景도 역시 關格을 病症으로 알았다. 두 글자의 뜻에 대해서는 內經과 仲景 모두 자세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 難經의 第三難에서 “關之前者 陽之動也 遂上魚爲澁 爲外關內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라고 하여 역시 澁 覆으로써 脈을 말하고 關格으로써 病을 말한 것이다. 오늘 馬氏가 難經을 험뜯고 또 仲景 東垣 丹溪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關格을 脈體라고 가리켰는데 이는 內經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關爲陽不得入 格爲陰不得出”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脈이 모두 한 病人 것으로 역시 그 뜻에서 서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素問·刺志論】 脈小血多者 飲中熱也²⁰⁾

按: 靈樞와 素問에는 모두 痰字이 없으며 오직 이곳에만 飲字이 있을 뿐이다.

【素問·陰陽別論】 二陽一陰病 主驚駭背痛 善噫善缺 名曰風厥²¹⁾

1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69~70. (昂按 關格二字 字麵雖殊 而意義則一 難經雖顛倒 疑無傷也 如素問脈要精微論 陰陽不相應 病名曰關格 是明以關格屬之病矣 又仲景平脈篇 下微本大者 則爲關格不通 不得尿 又曰 趺陽脈伏而澁 伏則吐逆 水穀不化 澁則食不得入 名曰關格 是仲景亦以關格爲病症 而二字之義 內經與仲景均未嘗細分也 又難經第三難曰 關之前者 陽之動也 遂上魚爲澁 爲外關內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 是亦以澁覆言脈 而以關格言病也 今馬氏既訾難經 又以仲景東垣丹溪爲非是 而指關格爲脈體 不亦并背內經乎 又曰 關爲陽不得入 格爲陰不得出 是兩脈共爲一病矣 幹義亦難分也)

2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70. (按 靈素皆無痰字 惟此處有飲字)

按: 네 經은 모두 背部와 연계가 없는데 背痛을 운운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心은 噫(하품)이고 陽明이 心에 絡屬하므로 하품을 잘하는 것이다. 陰陽이 相引하므로 하품(欠)하며 風木이 胃土를 犯하므로 厥하는 것이다.

【素問·氣厥論】 肺消 肺消者 飲一溲二 死不治²²⁾

昂按: 癰腫, 狂, 膈, 肺消之症은 대부분 火熱에 속하는데 經文에서는 모두 ‘移寒’이라고 하였다. 만약 ‘熱’로 解釋한다면 아래 글에 또 ‘移熱’이라는 句節이 있다. 여러 註文에서는 症에 따라 訓釋하였는데 熱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寒이라고 말한 것도 있으며, 말한 것은 같지 않아도 뜻은 ‘移’라고 하기는 실로 어렵다. 생각하건대 ‘移寒’의 ‘寒’字는 마땅히 病을 얻은 시작으로 하여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膈寒은 대부분 熱結에 속하고, 膈症은 寒膈이 없으며, 癰腫사이에는 寒瘍이 있지만 熱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狂, 癲, 肺消를 모두 寒이 오래되어 熱로 변한 것으로 解釋한다면 經文의 뜻에 通하게 된다. 만약 아래 글에서 ‘移腎湧水’라고 하였다면 이는 시종 陰寒에 속하는 것이다.

【靈樞·邪客】 治之奈何 飲以半夏湯一劑 陰陽已通 其臥立至²³⁾

按: 半夏는 和胃하고 通陰陽하는데 今人들은 半夏가 燥하다고 하여 감히 使用하지 못하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素問·腹中論】 病名血枯 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 若醉入房中 氣竭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²⁴⁾

2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73. (按 四經皆與背無涉 而云背痛 未詳 心爲噫陽明絡屬心 故善噫 陰陽相引 故欠 風木幹胃土 故厥)

2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80~81. (昂按 癰腫狂膈 肺消之症 多屬火熱 而經文俱云移寒 若作熱解 則下文又有移熱一段 諸註隨症訓釋 或言熱或言寒 語雖不一 義實難移 竊謂移寒寒字 當作受病之始言 如隔塞多屬熱結 若云膈症間有寒隔 癰腫間有寒瘍 然屬熱者多 與狂癲肺消 均當作寒久變熱解 于義始通 若下文移腎湧水 則始終均屬陰寒也)

2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85. (按 半夏能和胃而通陰陽 今人率以爲燥而不敢用 誤矣)

2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

昂按: 脉要精微論에서는 少腹에 有形한 것을 心疝이라고 하였는데 역시 이곳과 다르다.

【素問·奇病論】人生而有病巔疾者 此得之在母腹中時 其母有所大驚 氣上而不下 精氣并居 故令子發爲巔疾也²⁵⁾

昂按: 病은 놀라서 생기는 것으로 巔은 膻堂 癲으로 解釋한다. 만약 巔頂이라고 한다면 무슨 病人지 알 수가 없다.

【靈樞·口問】穀入於胃 胃氣上注於肺 今有故寒氣 與新穀氣 俱還入於胃 新故相亂 眞邪相攻 氣并相逆 復出於胃 故爲噦²⁶⁾

昂按: 呃逆에는 實하고 虛한 것이 있고 寒하고 熱한 것이 있으며 病原과 病候는 각각 다른데 여기에서는 특히 그 한 측면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噦를 嘔吐라고 한다면 呃逆도 病中의 要症으로 二經에서 어찌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人之太息者 何氣使然 憂思則心系急 急則氣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伸出之 人之涎下者 何氣使然 飲食者 皆入於胃 胃中有熱則虫動 虫動則胃緩 胃緩則廉泉開 故涎下²⁷⁾

昂按: 風中舌本하면 舌縱難言하고 廉泉이 열려 涎沫을 흘리는데 이를 虫動이라고 말한다면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

○人之耳中鳴者 何氣使然 耳者宗脉之所聚也²⁸⁾

印本, p. 89. (昂按 脉要精微論 以少腹有形 爲心疝 亦與此不同)

2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1. (昂按 病由驚起 巔當作癲 若云巔頂 不知是何病也)

2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2~93. (昂按 呃逆有實有虛 有寒有熱 病原病候 種種不同 此特言其一端耳 若以噦作嘔吐 則呃逆亦病中要症 二經豈漫無一字及之哉)

2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3~94. (昂按 風中舌本則舌縱難言 廉泉開而流涎沫 此云虫動 尙有未該)

2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4. (昂按 人夜臥之時 五官皆不用事 惟耳能听 豈非以宗脉所聚 故能有所警覺也乎 又人在母腹中 僅一血胚 聞雷霆火爆之聲 則驚而跳 此時五官未備 而聞性已與外物相通 故楞嚴二十五圓通 獨重耳根 孔子亦言 六十而耳順 則耳之異於諸官也明矣)

昂按: 사람이 밤에 자고 있을 때 五官은 모두 用事하고 있는데 유독 귀만이 들을 수 있다. 이것은 宗脈이 모이어서 警覺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의 뱃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울고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쫓는다. 이때에는 아직 五官이 形成되지 않았는데 이미 外物과 相通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楞嚴』의 二十五圓通에서는 耳根을 惟獨 重視하였다. 孔子도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와 기타 官이 다르다는 것이다.

○故邪之所在皆爲不足 故上氣不足 腦爲之不滿 耳爲之苦鳴 頭爲之苦傾 目爲之眩 中氣不足 溲便爲之變²⁹⁾

按: 內經에는 遺精과 白濁이라는 글귀가 없다. 그러나 책에서 白, 溲白, 白淫이라고 하였는데 溲는 便이 變한 것이고 또 水液이 混濁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모두 熱에 속한다.

【素問·脈要精微論】陰盛則夢涉大水恐懼 陽盛則夢大火燔灼 陰陽俱盛 則夢相殺毀傷 上盛則夢飛 下盛則夢墮 甚飽則夢與 甚飢則夢取³⁰⁾

按: 배고프거나 배부르면 꿈에 飲食이 많이 나타나고, 또 便이 급하면 꿈에 물에 빠지는 것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피로하면 꿈에 어려움을 느끼며, 足이 酸하면 꿈에 急行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종류이다.

【靈樞·寒熱病】五臟身有五部 伏兔一 腓二 腓者腦也 背三 五臟之膈四 項五 此五部 有癰疽者 死³¹⁾

昂按 陽毒이 발생한 者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지만 陰毒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者는 꼭 치료하기 어렵다.

2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4.

(按 內經無遺精白濁之文 但書云白濁白淫 溲便變 又云水液渾濁 皆屬於熱)

3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8. (按 飢飽夢飲食者多 亦犹便急而夢溺也 人之心勞者夢作苦 足酸者夢急行 亦其類也)

3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9. (昂按 陽毒發起者尙可治 若陰毒不起者 斷難治也)

【素問·熱論】 六日厥陰受之 厥陰脉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³²⁾

昂按: 陰症에는 寒藥을 忌用하여야 하지만 舌卷囊縮에는 寒이 極에 달해 縮한 者가 있으므로 四逆 吳茱 火灸葱熨 等 方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陽明의 熱이 厥陰에 陷入하면 陽明은 원래 主潤宗筋하는데 宗筋이 熱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榮하지 못하여 急해지며, 역시 舌卷囊縮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熱이 極에 달한 것으로 大承氣湯을 써서 陽을 瀉하고 陰을 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몰라서는 아니 된다.

○ 三陰三陽 五臟六腑皆受病 榮衛不行 五臟不通 則死矣³³⁾

昂按: 仲景이 經을 나눌 때는 비록 足經을 위주로 하였지만 그가 약을 쓸 때에는 手經에 들어가는 것을 排除하지는 않았다. 먼저 麻黃湯 桂枝湯이 모두 肺經藥이고, 承氣湯과 白虎湯이 역시 三焦와 大腸의 藥이며, 瀉心湯에 대해서는 心을 瀉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였다.

【素問·痞論】 注於伏膺之脉³⁴⁾

按: 冲脉은 腎에 入한 絡脈으로 腎脉과도 并行한다.

○ 夫風風痞之與痞也 相似同類 而風獨常在 痞得有時而休者何也 曰 風氣留其處 故常在 痞氣隨

3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2. (昂按 陰症忌用寒藥 然舌卷囊縮 有寒極而縮者 宜用四逆吳茱火灸葱熨等法 又有陽明之熱 陷入厥陰 陽明主潤宗筋 宗筋爲熱所攻 弗榮而急 亦致舌卷囊縮 此爲熱極 宜大承氣以瀉陽救陰 不可不知)

3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2. (昂按 仲景分經雖主於足 至其用藥 亦未嘗遺手經也 先正以麻黃桂枝皆肺經藥 承氣白虎亦三焦大腸之藥 至瀉心湯則前言瀉心矣 劉草窗曰 足太陽少陰屬水 水得寒而冰 足陽明太陰屬土 土得寒而坼 足少陽厥陰屬木 木得寒而凋 故寒喜陽之 手六經則屬火與金 火得寒而愈烈 金得寒而愈剛 故寒不能傷 創論新异 世多奇之 一陽子何東辨之曰 劉子將人身榮衛經絡上下截斷 下一段受病 上一段無干 失血氣周流瞬息罔聞之旨矣 內經云 五臟六腑皆受病 謂五臟六腑而無手六經可乎 經又云 人之傷寒則爲病熱 既曰病熱 則無水冰土坼木凋之說 而有金燄火亢之征矣 且列手經受病甚晰 見醫方集解)

3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6. (按 冲脉入腎之絡 亦與腎脉并行 張注作伏冲膺筋二脉)

經絡 沉以內薄 故衛氣應乃作³⁵⁾

昂按: 衛氣는 陽이고 表를 主하며, 痞疾은 비록 陰經에 陷入한 것이 있지만 반드시 衛氣가 應하기를 기다려 發作하는데 이는 陰中에 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病이 甚할지언정 사람을 죽일 程度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靈樞歲露論은 이 篇과 대략 같다.

○ 其氣先從內出之於外也³⁶⁾

昂按: 이것은 春溫之症으로 寒氣가 積久하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達하는데 이는 傷寒의 由表傳里와 같지 않다. 王安道는 “매번 溫熱病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 그 裏를 잘못 攻하여서는 큰 해로움이 없지만 만약 그 表를 잘못 發하면 되지 않는다. 이는 그 熱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達함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不及於陰 故但熱而不寒 氣內藏於心³⁷⁾

昂按: 이 病은 肺痺과 心痺의 種類이며 앞에 있는 脾痺이나 胆痺과 같다. 痺은 熱이다.

【素問·刺痞論】 腹中悒悒³⁸⁾

昂按: 傷寒에서는 足經을 언급하였지만 手經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本篇에서 痞를 論한 것도 역시 足經은 언급하였지만 手經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찌 痞邪가 足經에만 들어가고 手經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足經이 된다면 手經도 되는 것이다. 篇 후에 腑痞를 말하면서 다만 胃腑에만 들어가고 他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어찌 胃를 六腑之長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3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7. (昂按 衛爲陽主表 痞疾雖有陷入陰經者 然必待衛氣應乃作 是爲陰中有陽 故雖甚而不至於殺人也 靈樞歲露論 與此篇略同)

3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8. (昂按 此即春溫之症 寒氣積久 自內達外 非猶傷寒之由表傳里也 王安道曰 每見治溫熱病 誤攻其里 亦無大害 誤發其表 變不可言 此足明其熱之自內達外矣)

3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09. (昂按 此病當是肺痺心痺之類 與前脾痺胆痺同 痺熱也)

3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1. (昂按 傷寒言足經而不及手經 本篇論痞 亦言足而不及手經 豈痞邪亦傳足不傳手乎 抑足經可以該手經也 篇后言臍痞 僅胃府而不及他府 又豈以胃爲六府之長乎)

【素問·咳論】肺寒則外內合邪 因而客之 則爲肺咳 五臟各以其時受病 非其時各傳以與之³⁹⁾

昂按: 心 小腸 肝 胆 三焦의 火, 脾 腎 膀胱의 濕, 胃 大腸의 燥가 肺에 傳入하면 모두 咳를 일으킬 수 있으니 風寒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 則脾先受之 乘冬則腎先受之⁴⁰⁾

昂按: 만약 傳達되지 않는다면 각각 本藏의 病에 속하며, 만약 他臟에 邪가 移轉된다면 이는 他病에 속한다.

○ 此皆聚於胃 關於肺⁴¹⁾

昂按: 肺는 主氣하고 金에 속하며 聲을 主하므로 咳는 肺로 인해서이다. 무릇 風寒에 傷하여 咳嗽하는 者는 輕한 것이고 肺가 皮毛를 主한 것으로 表에 속한다. 만약 風寒이 經絡과 腑臟를 傷하였지만 肺에 傳해지지 않았다면 咳하지 않는다. 咳하지 않는 者는 重한데 예를 들면 眞傷寒이나 類傷寒 같은 것들이다. 또 火熱을 오래 앓아 肺를 傷하게 되어 咳痰 咳血 聲啞 聲嘶한 者는 이 病이 오래된 것으로 그 傳變된 咳는 역시 重症에 속한다.

【素問·舉痛論】寒氣客於小腸膜原之間 絡血之中 血泣不能注於大經 血氣稽留不得行 故宿昔而成積矣⁴²⁾

按: 이것이 지금의 小腸氣이다.

○ 寒則膜理閉 氣不行 故氣收矣⁴³⁾

3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2~113. (昂按 心小腸肝胆三焦之火 脾胃膀胱之濕 胃大腸之燥 傳入於肺 皆能作咳 不獨風寒也 馬注作肺傳邪於五臟而咳 李士材宗之 謬 觀篇首肺之令人咳 篇后關於肺二語 則咳之必由於肺明矣)

4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3. (昂按 若不傳則各爲本藏之病 若移邪於他藏 則又爲他病矣)

4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4. (昂按 肺主氣 又屬金 主聲 故咳必由於肺也 凡傷風寒而咳嗽者爲輕 以肺主皮毛而在表也 若風寒徑傷 經絡腑臟 而不傳於肺 則不咳 不咳者重 如眞傷寒類傷寒之屬是也 又有久病 火熱傷肺 而爲咳痰咳血聲啞聲嘶者 此病久傳變之咳 亦重症也)

4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6. (按 此即今之小腸氣也)

4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7. (昂按 凡傷寒必衛氣閉拒 故治寒疾者 多用發散之劑)

昂按: 무릇 傷寒은 반드시 衛氣가 閉拒하므로 寒疾을 치료하는 者는 發散之劑를 多用한다.

【素問·風論】其病各異 其名不同 或內至五臟六腑 愿聞其說 曰 風氣藏於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⁴⁴⁾

昂按: 寒邪는 飲冷하여 內傷한 者가 있으며, 風邪는 모두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 頭痛不可以出內 至其風日 則病少愈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⁴⁵⁾

昂按: 熱을 두려워한다면서 어찌하여 그 아래에서는 惡風한다고 하였는가?

○ 泄風之狀 多汗 汗出泄衣上 口中干 上漬其風 不能勞事 身體盡痛則寒⁴⁶⁾

按: 『素問』 『風論』 『痺論』 『痿論』은 三篇으로 나뉘며 病原의 不同함에 따라 治法 역시 다르다. 今世에서는 대부분 混同하여 論治하기에 丹溪가 글을 써서 分別하였다. 又按: 中風의 大法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一曰偏枯 즉 半身不遂이고, 二曰風痺 즉 身無痛痺, 四肢不收이며, 三曰風癱 즉 奄忽不知人이고, 四曰風痹 즉 諸痺類風狀이다. 대저 風 痺 痿 厥의 四症은 서로 類似한 점이 많다. 又按: “『靈樞·壽夭剛柔篇』에서는 病이 陽에 있는 것은 風이라 부르고 病이 陰에 있는 것은 痺라고 부르며, 陰陽이 모두 병든 것은 風痺라고 부른다. 病이 有形이고 不痛한 것은 陽의 種類이고, 無形이고 痛한 것은 陰의 種類이다.”라고 하였다.

【素問·痺論】循俞而入 各舍其腑也⁴⁷⁾

4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18. (昂按 寒邪有飲冷而內傷者 風邪則俱從外入)

4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21. (昂按 既云畏熱 下何以又言惡風乎)

4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21. (按 素問風論痺論痿論 分爲三篇 病原不同 治法亦異 今世多混同論治 故丹溪著論辨之 又按中風大法有四 一曰偏枯 半身不遂也 二曰風痺 身無痛痺 四肢不收也 三曰風癱 奄忽不知人也 四曰風痹 諸痺類風狀也 由此觀之 則風癱類厥症 風痺類痺症 大抵風痺痿厥四症 多有相類之處 又按靈樞壽夭剛柔篇 病在陽者曰風 病在陰者曰痺 陰陽俱病曰風痺 病有形而不痛者 陽之類也 無形而痛者 陰之類也)

4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24. (昂按 六腑前文只列腸膀胱脾 三焦有名無形)

昂按: 六腑의 前文에서는 腸癖와 胞癖만을 열거하였다. 三焦는 有名無形하고 膽은 肝에 附하며 胃는 臟腑之海이므로 다시 별도로 癖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病機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醫學理論에 대한 數衍說明을 한 부분도 있다.

4. 脈要第四

【素問·經脈別論】 氣口成寸 以決死生⁴⁸⁾

按: 脈前은 寸이고 脈后는 尺이며 脈中은 關이다. 여기에서 成寸이라 말함은 대개 關尺을 兼하였기에 말하는 것이다. 醫者는 여기에서부터 脈을 察하여 病을 알게 됨으로서 사람의 死生을 판단할 수 있다.

【素問·脈要精微論】 則氣高 下盛⁴⁹⁾

昂按: 腎도 脹할 때가 있다.

【素問·腹中論】 何以知怀子之且生也 身有病而無邪脈也⁵⁰⁾

昂按: 婦人이 임신을 하면 嘔惡 頭痛 등 諸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形은 비록 病이 들었지만 脈은 病이 없으며 만약 月經이 없다면 이는 正常인 것으로 病이 아니다.

【素問·平人氣象論】 婦人手少陰脈動甚者 妊子也⁵¹⁾

昂按: 이는 분만하려고 할 때의 狀態를 말함일 것이다. 手少陰은 手中之少陰을 말한 것으로 腎脈이지 心脈이 아니다.

【靈樞·動輸】 經脈十二 而手太陰足少陰陽明獨動不休何也⁵²⁾

肌附於脾 胃爲臟腑之海 故不妄別言癖也)

4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40. (按 脈前爲寸 后爲尺 中爲關 此云成寸 蓋兼關尺而言之也 醫者由此察脈 知病以決人之死生也)

4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41. (昂按 腎亦有脹)

5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50~151. (昂按 婦人怀子 多有嘔惡頭痛諸病 然形雖病而脈不病 若經閉其常耳 非病也)

5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51. (昂按 此少指欲媿身時而言也 手少陰 言手中之少陰 乃腎脈 非心脈也)

按: 胃의 動脈이다. 馬氏는 “足의 沖陽”이라고 註하였지만 下文에서는 足を 말하지 않고 다만 “上沖頭并下人迎, 別走陽明”이라고 말하였다. 人迎이라고 함이 옳을 것 같다.

○ 下入內踝之后 入足下 其別者邪入踝 出屬跗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⁵³⁾

按: 諸篇에서 모두 沖脈이 上沖함을 말하였는데 惟獨 이 篇과 順逆肥瘦論에서만이 “沖脈이 腎脈과 함께 下行한다.”고 하였다. 馬氏는 “이로부터 볼 때 肺脈이 절세없이 動하여 營氣가 肺氣를 따라 諸經을 行하며 諸經의 脈은 肺로 모이고, 胃脈이 절세없이 動하여 衛氣가 胃로부터 三陽을 循行하면서 끊임없이 行하게 된다. 腎脈이 절세없이 動하는 것은 沖脈과 并行하여 諸絡을 灌하여 끊임없이 行하는 것이다.”라고 註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脈과 관련된 부분의 誤謬를 지적한 것이 대부분이다.

5. 診候第五

【素問·脈要精微論】 推而下之 下而不上 頭項痛也⁵⁴⁾

昂按: 이것이 곧 五常政大論에서 말하는 所謂 上取下取와 內取外取이며 이로써 그 過함을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內經』의 내용을 數衍說明한 부분이다.

6. 運氣第六⁵⁵⁾

5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51. (按 胃之動脈 馬注作足之沖陽 然下文并未說到足上 惟云上沖頭 并下人迎 別走陽明 似以人迎爲是)

5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52~153. (按 諸篇俱言沖脈上沖 惟此篇及順逆肥瘦論 言沖脈并腎脈下行 馬注云 由此觀之 肺脈之動不休者 以營氣隨肺氣而行諸經 諸經之脈 朝於肺也 胃脈之動不休者 以衛氣由胃循三陽 而行不已也 腎脈之動不休者 以與沖脈并行 灌諸絡而行不已也)

5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58. (昂按 此即五常政大論所謂上取下取 內取外取 以求其過是也)

5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

按: 運氣에 대해 後世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열심히 읽어보니 이치를 分析한 것이 깊고 用語를 使用함이 굉장하며, 위로는 天文을 따지고 아래로는 地氣를 관찰하며 中으로는 人事를 研究한 것이 누가 이렇듯 웅장한 篇章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百世를 지나오면서 모두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절대로 廢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을 精要한 것만 추려서 선택하였는데 그 說法이 원래 복잡하고 仔細한 것을 모두 記錄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깊이 공부하려 한다면 책 全體를 다 읽고 꿰뚫어야 한다.

【素問·五運行大論】 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帝曰 馮乎 曰 大氣舉之也 燥以干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游行其間 寒暑六入⁵⁶⁾

昂按: 寒暑 두 글자는 略語로서 六氣를 아울러 말한 것이다. 張氏는 “六者之氣는 모두 땅속에 들어가며 따라서 有形之地는 無形의 虛氣를 받아 萬物을 化生한다.”라고 註하였다. 又按: 이것이 바로 乾坤이 六子를 專任하여 萬物을 이루는 이치이다.

【素問·至眞要大論】 身半以上 其氣三矣 天之分也 天氣主之 身半以下 其氣三矣 地之分也 地氣主之⁵⁷⁾

昂按: 天氣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司天과 左右의 두 間氣이다. 地氣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在泉과 左右의 두 間氣이다. 本篇의 後文에서는 “初

氣終三氣는 天氣가 主하고, 四氣盡終氣는 地氣가 主하는데 역시 上下의 各 三氣이다. 大腸과 小腸이 모두 下部에 있는데 어찌 身半以上의 天氣에 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素問·氣交變大論】 上應熒惑辰星⁵⁸⁾

按: 五運六氣의 太過不及과 胜复淫郁은 經文에서 지극히 자세하게 언급하였는데 본문에서는 많이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비슷하므로 몇 段落만 취하여 그 나머지의 것도 대표하려고 한다.

【素問·寶命全形論】 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⁵⁹⁾

昂按: 나무는 土에 뿌리를 두므로 土는 나무를 生하는 母인데 어찌하여 木이 반대로 土를 克하는가? 대저 土는 그 膏液을 다하여 나무를 기른다. 만약 土가 木을 克하여 土만 있고 木이 없다면 花葉의 菁蕙함이 없고 果穀의 成熟이 없으며 人民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天地는 黠淡無章하게 되며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니 土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木이 土의 氣를 疏하는 것은 또한 土의 德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文에서는 達이라고만 말하였는데 이는 伐 滅 缺 絕 너자와는 다른 것이다. 趙養葵는 “世人들은 모두 木克土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직 升木하여 培土한다고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뜻과 會通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는 運氣學과 關聯된 부분의 오류 및 의문점을 敷衍說明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7. 審治第七

印本, p. 165. (按 運氣一書 後世有信其說者 有不信其說者 愚伏讀其書 析理淵深 措辭奇偉 上窮天文 下察地氣 中究人事 入理之處 確不可易 非深於天人之際 性命之微者 孰能創是鴻篇乎 所以歷百世而咸宗之 卒不可廢也 今量取其精要說理者 至其圖說錯綜 纖悉言數者 不能盡畧 欲深造者 當統觀其全書可也)

5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68. (昂按 寒暑二字乃省文 蓋兼六氣而言者也 張注 六者之氣 皆入於地中 故今有形之地 受無形之虛氣 而化生萬物也 又按 此即乾坤專任六子 即成萬物之義)

5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79. (昂按 天氣三 謂司天及左右二間氣也 地氣三 謂在泉及左右二間氣也 本篇後文云 初氣終三氣 天氣主之 四氣盡終氣 地氣主之 亦上下各三氣也 若大腸小腸皆在 下部 何以能應身半以上之天氣乎)

5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84. (按 五運六氣 太過不及 胜复淫郁 經文言之至爲詳悉 本集不能多畧 然大旨略同 故量取數段 可以概其余矣)

5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84~185. (昂按 木樹根於土 是土爲生木之母 何以木反克土乎 蓋土竭其膏液 以榮養乎木 若或克之耳 使土而無木 則無花葉之菁蕙 無果穀之成熟 人民無所資養 天地黠淡無章 不過頑然壘塊而已 土何利之有焉 木者 所以疏土之氣 又以成土之德也 故經文獨言達 而不同於伐滅缺絕四條也 趙養葵曰 世人皆言木克土 而余獨升木以培土 其有會於斯旨也歟)

【素問·至眞要大論】 疏其血氣 令其調達 而致和平 此之謂也⁶⁰⁾

昂按: 病机에는 十九條가 있는데 그중 火가 五條를 占하고 熱이 四條를 占하니 諸病가운데서 火熱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임을 보아낼 수 있다. 대저 風 寒 暑 濕은 모두 火와 熱로 될 수 있다. 宇宙間의 天地万物은 모두 이 陽火에 의뢰하여 生發之本으로 삼는다. 만약 이 火가 없다면 天地에는 거의 모든 생명이 꺼질 수도 있다. 庄子는 “火傳不知其盡”이라고 하였고 釋氏相宗도 暖과 常을 并學하였다. 그러나 平하면 좋은 것이고 亢하면 害로운 것으로 生殺之機는 서로 倚伏해 있으며 만물이 다 이렇하다. 따라서 火는 능히 生人할 뿐만 아니라 또한 能히 殺人하기도 한다.

【素問·至眞要大論】 無問其數 以平爲期 此其道也 寒者熱之 熱者寒之 微者逆之 甚者從之⁶¹⁾

按: 이것은 上文의 “微者隨之 甚者制之”와 相反되는데 여기에는 각각 그 오묘함이 들어 있다.

【素問·五臟生成論】 多食辛 則筋急而爪枯⁶²⁾

按: 肝은 散하기를 좋아하므로 辛味는 능히 補肝하며, 오직 過多할 때에만 해롭다.

【素問·生氣通天論】 味過於辛 筋脉沮弛 精神乃央⁶³⁾

昂按: 酸 咸 甘 辛味는 그 해로움만 말하고 이 로움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苦味는 그 이로움만 말하고 해로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古文은 한 예에만 局限되지 않으니 여지로 解釋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는 자신의 『內經』의 내용을 자신의

臨床經驗으로 설명하려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IV. 總括 및 考察

『素問靈樞類纂約註』는 적지 않은 곳에서 독특한 學術見解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素問』에서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 其充在筋 以生血氣”⁶⁴⁾라고 하였는데 汪昂은 註釋에서 “肝은 筋을 주관하고 筋은 運動을 주관하므로 疲勞하게 된다.”⁶⁵⁾라고 하였고 또 “肝은 春과 木에 屬하여 生發의 根本이 된다.”⁶⁶⁾이라고 하였으며, 더욱 나아가 “世醫들이 항상 伐肝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內經이 意味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⁶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汪昂은 臨床에서 肝을 伐하는 것을 主張하지 않았으니 ‘肝無補法 腎無瀉法’은 그 觀點이 이와 많이 다르다. 汪昂의 觀點으로 볼 때 人生은 낮이면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 움직이며, 陽은 움직임을 주관한다. 사람의 몸이 생겨난 主旨는 運動에 있으며 따라서 지치게 일하고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체가 消耗되고 疲勞하게 되는 關鍵이 되며 肝이 過度하게 使用되는 前提이기도 하다. 또 肝은 氣血을 生하고 生發을 주관하므로 인체의 後天生化의 源泉이 된다. 肝 使用의 生理負荷에 대해서는 약물을 함부로 써서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汪昂은 ‘伐肝’을 主張하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內經』의 뜻을 잘 把握하지 못한 表現이라고 하였다. 現代 臨床의 視覺으로 볼 때 肝의 機能은 生理代謝過程에서 중요한 生化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病變은 비교적 치료하기 어렵다.

한 故鄉 친구를 틈이 날 때 診脈하였는데 四十六七歲가 되기 전에는 脈이 모두 弦한 것이

6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86. (昂按 病机十九條 而火居其五 熱居其四 可見諸病火熱爲多 蓋風寒暑濕 皆能爲火爲熱也 宇宙間天地万物 皆賴此陽火 以爲生發之本 若無此火 則天地或幾乎息矣 庄子所謂火傳不知其盡 而釋氏相宗 亦以暖與常并學也 但平則爲恩 亢則爲害 生殺之機 互相倚伏 凡物皆然 故火能生人 而亦能殺人也)

6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88. (按 此與上文微者隨之甚者制之相反 而各有其妙)

6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00. (按 肝喜散 故辛能補肝 惟多則爲害)

6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01. (昂按 酸咸甘辛 言其害而不及其利也 味苦言其利而未及其害也 古文不拘一例 不必穿鑿強解)

64)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83, p. 54.

6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3. (肝主筋 筋主運動 故疲勞)

6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3. (肝屬春 屬木 爲生發之本)

6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14. (世醫動言伐肝 益未究內經之旨耳)

顯著하였으며 五十歲 以後에는 매번 診脈할 때마다 弦脈이 크게 減少하였다. 以後에는 그의 健康狀況이 역시 前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精力도 점차 衰退하였는데 이로부터 生理的인 弦脈의 盛衰는 肝氣의 強弱을 나타내는 징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脈이 弦한 것을 보고 肝을 伐한다면 이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된다. 따라서 汪昂이 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伐肝’을 主張하지 않은 觀點은 現代의 臨床治療學的으로 특별한 意義가 있다.

예로부터 『內經』의 注釋家들은 『素問·解精微論』에서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 其竅也”⁶⁸⁾에 關連한 解說에 대하여 忽視하였는데, 이것은 韓醫學에서 腦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基點의 하나이며, “心之官則思”를 解釋하는 理論의 橋梁이 된다. 또 『素問靈樞類纂約註·雜論第九』에서 “目は 肝竅이다. 그러나 事物을 辨別할 수 있으므로 또한 心竅로도 된다.”⁶⁹⁾라고 하였다. 汪昂은 『內經』의 精微로부터 “目爲心竅”라는 理論을 제기하였고 이는 韓醫學에서 數千年동안 사람들을 어렵게 하였던 腦에 대한 理論의 건립에 중요한 理論 基礎를 提供하였다. 明나라 李時珍의 “腦爲元神之府”와 汪昂의 “目爲心竅” 및 그의 “人之記性在於 腦”⁷⁰⁾의 記述은 清代 『內經』에서 腦에 대한 理論을 發揚하는데 첫 발자국을 떤었고 韓醫學에서의 腦에 대한 理論을 완벽히 하는데 거대한 貢獻을 하였다.

『素問靈樞類纂約註』의 編纂過程中에서 汪昂은 經旨가 臨床에 대해 일으키는 指導와 應用 역할을 매우 重視하였으며 이는 이 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形寒飲則傷肺 以其兩寒相感 中外皆傷 故氣逆而上行”⁷¹⁾이라고 하였는데 汪昂은 이에 대

해 “지금의 사람들은 形寒하여 外傷寒인 것만 알고 飲冷하여 內傷寒인 것은 모르는 이유로 ‘陰證’으로 잘못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⁷²⁾라고 하였다. 汪昂은 또 “飲冷者는 房事를 하지 않아도 매번 傷寒을 앓을 수 있다. 만약 房事가 있고 飲冷하여 傷寒에 걸렸다면 三陽經에 맞은 者는 陽證으로 論治하여야 하지 陰證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 世間의 醫員들은 이를 모르기에 함부로 熱劑를 투약하여 사람을 많이 죽게 하므로 특히 世人들에게 알리노라.”⁷³⁾라고 하였다. 특히 指摘해야 할 것은 『素問』과 『靈樞』에서 많은 經文은 解釋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그 理由를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經文을 註釋한 者는 많았지만 일부의 關鍵部分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알고 넘어가게끔 하는 者는 많지 않았고, 다만 그 經文의 意味를 妙하게 알거나 潛通한 사람이어야 한두 가지 高見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汪昂은 經旨를 깊이 研究하고 따지는 先哲이었다. 예를 들면 『素問』의 “心移寒于肺”⁷⁴⁾에 대한 句節에 대해 汪昂은 “癰腫 狂 膈肺消之症은 대부분 火熱에 속하는데 經文에서는 모두 ‘移寒’이라고 하였다. 만약 ‘熱’로 解釋한다면 아래 글에 또 ‘移熱’이라는 句節이 있다. 여러 註文에서는 症에 따라 訓釋하였는데 熱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寒이라고 말한 것도 있으며, 말한 것은 같지 않아도 뜻은 ‘移’라고 하기는 실로 어렵다. 생각하건대 ‘移寒’의 ‘寒’字는 마땅히 病을 얻은 시작으로 하여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膈寒은 대부분 熱結에 속하고, 膈症은 寒膈이 없으며, 癰腫사이에는 寒瘍이 있지만 熱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狂, 癲, 肺消를 모두 寒이 오래되어 熱로 변한 것으로 解釋한다면 經文의 뜻에 通하

6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14.

6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214. (目爲肝竅 然能辨別事物 故又爲心竅)

70) 汪詒庵,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 136.

7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67.

7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67. (今惟知形寒爲外傷寒 而不知飲冷爲內傷寒 論爲陰證 非也)

73)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67. (飲冷者 雖無房事 而亦每患傷寒也 若房事飲冷而患傷寒 亦有在三陽經者 當從陽證論治 不得便指爲陰證也 世醫不明 妄以熱劑投入 殺人多矣 特提出以告世人)

74)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80.

게 된다. 만약 아래 글에서 ‘移腎湧水’라고 하였다면 이는 시종 陰寒에 속하는 것이다.”⁷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설명할 것은 汪昂의 이런 뜻이 모두 經旨에 맞는 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見解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提唱해야 할 것은 汪昂이 經文에 대한 研究가 이렇듯 精銳하고 참다운 것으로 그의 이런 精神과 學術上의 成就는 後學들에게 깊은 印象을 심어 주었으며 또한 後人들의 探究에 아주 귀중한 思考의 方向을 提示하여 주었다.

『內經』이후 運氣學說에 대한 理解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觀點도 일치하지 않았다. 王冰이 註釋한 『素問』에서 自己의 見解가 상응하게 발휘되어 있었다. 많은 學者들은 運氣學을 취급한 『素問』의 七篇大論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감히 어찌지 못하였다. 『素問靈樞類纂約註』은 運氣學의 內容에 대해 適合한 評價를 내렸는데 즉 “運氣에 대해 後世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열심히 읽어보니 이치를 分析한 것이 깊고 用語를 使用함이 平장하며, 위로는 天文을 따지고 아래로는 地氣를 관찰하며 中間으로는 人事를 研究한 것이 누가 이렇듯 웅장한 篇章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百世를 지나오면서 모두 으뜸으로 여겨졌으며 절대로 廢棄하여서는 아니 된다.”⁷⁶⁾라고 하였다. 汪昂은 運氣學說에 관한 篇章을 매우 重視하였으며 이것이 平장한 篇章이고 大論이며 百世를 經過하여도 廢棄하여서는 아니 되는 重要한 內容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로부터 醫學者들은 運氣學說에서 強調한

“亢則害 承乃制 制則生化 外列盛衰 …… 害則敗亂 生化大病”⁷⁷⁾의 觀點에 대해서 重視하여 “經文에서는 運氣에 ‘生·剋’이 있고 또한 ‘制·化’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대저 五行의 이치는 相生만 貴한 것이 아니라 相剋이 더욱 重要하다. 剋하는 것이 있어 太過한 것을 制한다면 亢害한 것이 和平하게 되어 盛한 것이 衰하게 된다. 따라서 ‘外熱’하여 損益이 나타난 狀況을 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亢害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반드시 敗亂하게 됨으로 生化之原이 파괴된다. 生剋關係는 運氣學의 根本內容이고, 制하고 化하는 것은 또한 五運之理를 빌어 人類와 六氣의 關係를 調和롭게 한다. 古聖人들의 著作經典에서 化, 育을 研究한 動機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전체 運氣學說의 要點 혹은 重心이다.”⁷⁸⁾라고 하였다. 이는 汪昂이 『素問』과 『靈樞』를 約註하여 運氣를 쓴 動機이며 또한 要點을 簡明하게 提示하여 ‘五運六氣’를 解說하려는 目的이었다. 그 중에서 陰陽의 太過不及, 生剋, 制化, 勝復 등의 內容에 대한 理解는 깊었고 오래된 相對論의 內容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五運六氣學說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역할을 하여 過去를 繼承해 未來를 創造해 나가게끔 하였다. 예로부터 일부 심오하고 理解하기 어려운 文化를 발굴하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가 발전해 나가는 歷史過程에는 항상 한 두 사람의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簡單하게 그 중의 神秘를 밝히곤 하였는데 우리는 博學多識한 資質을 가진 汪昂이 韓醫學의 많은 분야의 問題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이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學術觀點은 後世에서 運氣學說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啓發 역할을 한다.

75)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p. 80~81. (癰腫在肺肺消之症 多屬火熱 而經文俱云移寒 若作熱解 則下文又有移熱一段 諸註隨症訓釋 或言熱 或言寒 語雖不一 義實難移 竊謂移寒 寒字當作受病之始 如膈寒多屬熱結 若云膈症無有寒膈 癰腫間有寒癰 然屬熱者多 與在癰肺消均當作寒久變熱解 於義始通 若下文移腎湧水 則始終均屬陰寒也)

76)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65. (按運氣一書 後世有信其說者 有不信其說者 愚伏讀其書 析理淵深 措辭奇偉 上窮天文 下察地氣 中究人事 入理之處 確不可易 非深於天人之際 性命之微者 孰能創是鴻篇乎 所以歷百世而成宗之 卒不可廢也)

77)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70.

78)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70. (經文言 運氣有生剋 而又有制化也 蓋五行之理 不獨貴於相生 而尤妙於相剋 有剋之者 以制其太過 則亢害者可化爲和平 而盛衰之故 昭然外列而可見 若一於亢害 必至於敗亂 而生化之原由此大病矣 蓋生剋者 運氣之常數 而制之化之 又所以轉五運而調六氣也 聖人作經 參贊化育 義專在此 數句實爲全經之要義)

醫學理論이 완벽해지고 發展하는데 하나의 뚜렷하고 쉽게 보아낼 수 있는 要素가 존재하는데 즉 儒家의 學者들이 儒家로부터 醫學에 入門하게 되어 儒家의 觀點과 方法과 識見을 醫學에 도입하여 醫學理論과 臨床應用이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 모두 奮發昇華하는 국면이 나타나게 하였다. 이전 狀況은 『素問靈樞類纂約註』에서 일부 難解한 글자나 단어 혹은 經句의 註解속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經文의 解釋에서도 그 客觀性을 證明하였다. 예를 들면 『靈樞·口問』에서 “人之耳中鳴者 何氣使然”이라고 하였는데 汪昂은 “사람이 밤에 자고 있을 때 五官은 모두 用事하지 않지만 있는데 유독 귀만이 들을 수 있다. 이것은 宗脈이 모이며 警覺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의 핏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울고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듣고 놀라 쫓는다. 이때에는 아직 五官이 形成되지 않았는데 이미 外物과 相通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楞嚴』의 二十五圓通에서는 耳根을 惟獨 重視하였다. 孔子도 ‘六十而耳順’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와 기타 官이 다르다는 것이다.”⁷⁹⁾라고 생각하였다. 汪昂이 『楞嚴經』과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이 經文을 理解한 것은 비록 概念性 思考에 속하지만 理解를 깊이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素問』에서 “七節之傍 中有小心”⁸⁰⁾이라는 한 句節에 대하여 汪昂은 “心은 性의 郭(外城)이고, 腎은 生命의 根本이며, 兩腎의 사이에 하나의 眞陽이 있어서 生命의 根蒂가 되는 것으로 命門의 뜻을 취하여 그리한 것이다.”⁸¹⁾라고 하였다. 『論語』에서는 “性相近也 習相遠也”라고 하였다. 儒家의 性理學과 生命

의 生氣는 비록 같은 길이 아니지만 生命의 內容을 설명하는데 서로 通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V. 結論

『素問靈樞類纂約註』는 清代 汪昂이 지은 『內經』에 대한 注釋書로 이에 대해 研究를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素問靈樞類纂約註』에서는 過去の 잘못된 注釋에 대한 修正을 하였으며, 『內經』의 意味를 臨床에 適用하려는 노력을 하여, 基礎理論과 臨床의 發展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2. 『素問靈樞類纂約註』에서의 “目爲心竅”라는 주장은 李時珍의 “腦爲元神之府”와 汪昂의 “人之記性在於腦”라는 記述과 더불어 清代의 腦에 대한 理論을 發揚하는데 첫 발자국을 떤었고 韓醫學에서의 腦에 대한 理論을 완벽히 하는데 거대한 貢獻을 하였다.
3. 運氣學說의 亢害承制論을 說明하면서 生剋關係는 運氣學의 根本內容이고, 制하고 化하는 것은 또한 五運之理를 빌어 人類와 六氣의 關係를 調和롭게 하는 것이므로 古聖人들의 著作經典에서 化와 育을 研究하는 動機이며 전체 運氣學說의 요점 혹은 重心이 된다고 하였다.
4. 難解한 글자나 단어 혹은 經句의 註解속에서 어려운 부분은 佛家 儒家 道家 등의 思想을 綜合적으로 引用하고 說明하여 客觀性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參考文獻

1. 洪元植·尹暢烈, 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2.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3. 賈維誠, 三百種醫籍錄, 哈爾濱,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79)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94. (人夜臥之時 五官皆不用事 惟耳能聽 豈非以宗脈所聚 故能有所警覺也乎 又人在母腹中 僅一血脈 聞雷霆火爆之聲 則驚而跳 此時五官未備 而聞性已與外物相通 故楞嚴二十五圓通 獨重耳根 孔子亦言 六十而耳順 則耳之異於諸官也明矣)

80)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4.

81) 汪昂, 考選部規定中醫師考試必讀 素問靈樞類纂約註, 影印本, p. 14. (心者性之郭 腎者命之根 兩腎中間 一點眞陽 乃生身之根蒂 義取命門 蓋以此也)

- 版社, 1982,
4. 汪昂, 本草備要,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